

글로벌 기관·기업 관계자 한자리... 'K-스타트업' 이목집중

르포

디캠프 '모크토크' 현장

싱가포르 현지서 투자행사 개최
일본 등 다양한 국가 관계자 참여
"글로벌 자금, 한국으로 끌어들이 것"

싱가포르 내 자산 규모 2위 은행인 OCBC와 현지 벤처캐피탈(VC)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한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KVIC), 우리자산운용 등이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를 통해 현지 VC에 출자하고 이들은 그 자금을 활용해 한국 스타트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투자규모는 1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싱가포르로 선(先)지원을 통해 국내로의 투자 물꼬를 트고, 그들의 넘쳐나는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희석 OCBC 산하 VC '라이온 엑스벤처스' 한국사무소 대표는 "싱가포르는 세금과 규제가 낮고 안전한 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 자금이 빠르게 모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이 뒤쳐진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의 교류와 투자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디캠프, 싱가포르 진출 교두보

지난 14일 저녁 19세기 수도원으로 쓰이던 싱가포르의 고풍스러운 건물 '콜드웰 하우스'는 국내외 금융사와 V



디캠프가 지난 14일 싱가포르 콜드웰 하우스에서 올해 두 번째 '모크토크(MokTalk)'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한국 스타트업 17곳이 차례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C 관계자 등 10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디캠프가 싱가포르에서 올해 두 번째 개최한 '모크토크(MokTalk)' 자리였다.

이번 모크토크에는 국내는 물론 싱가포르와 일본, 스위스 등 다양한 금융기관,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한국 성장금융, KVIC, 우리자산운용 등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글로벌 특화 펀드를 조성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투자금 유치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디캠프는 1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50억원을 싱가포르 VC로 출자하면 승수효과로 100억원의 투자가 국내 스타트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VIC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아시아를 포함, 글로벌 VC에 총 1억1100만 달러(약1481억원)을 선출자 후 최소 이 금액 이상을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

받기 위해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 안요청서(RFP)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싱가포르에 주목한 이유는 이곳이 아시아의 금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정치 상황에 중국과 홍콩을 떠난 자금이 싱가포르로 몰려든 원인이 가장 컸다.

싱가포르경제개발청(EDB)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싱가포르 내 고정 자산투자는 225억 싱가포르달러(SGD)로 전년(118억 SGD)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투자액 대부분은 미국(51%), 유럽(21%), 중국(9%)에서 들어왔고, 자국 투자자는 9%에 그친다. 일본의 자금도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다. 니혼게이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 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2019년 3조3133억엔(약 29조6270억원)에서 2023년 10조8543억엔(약97조원)으로 3.3배 늘었다.



◆ 한국 스타트업 주목

이날 모크토크 현장에선 한국 스타트업 17곳이 차례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싱가포르에 현지 사무소를 이미 열었거나, 싱가포르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다. 싱가포르 은행인 OCBC와 현지 벤처캐피탈(VC)들 역시 투자 가치가 있는 한국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싱가포르 VC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 윤성원 싱가포르지점 차장은 "싱가포르는 로컬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공개(IPO)도 적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 "반면 한국 주식시장은 IPO가 많고 엑시트도 원활한 편이기 때문에 현지 VC들은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고 투자 니즈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오픈이노

베이션 정책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헬스케어 등 주요 기업들의 유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디캠프 김시완 싱가포르 센터장은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AI와 반도체 등의 산업군은 약한 편"이라며 "이 때문에 이 분야에 유망한 한국 기업들을 싱가포르로 유치하려는 니즈가 높다"고 설명했다.

디캠프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자금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한국이 싱가포르 VC들에 먼저 출자하면 승수효과로 그 이상의 금액이 싱가포르로부터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한국 유망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에 넘쳐나는 글로벌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금감원, ELS 피해사례 도출 '쟁걸음'

H지수 판매사별 대표사례 선정 "시간단축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차등배상 기준안이 나오면 뭐 합니까. 대표 사례는 언제 나오나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있나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한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이 나온 지 일주일여가 지난 가운데, 투자자들은 배상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판매사와 관련 투자자 사이의 자율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대표 사례를 도출하는데 쟁걸음을 떼는 중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의 투자 손실은 6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배상비율은 23~50%로 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판매 회사별로 대표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뽑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대표 사례를 선정하고 나면 개별 사례를 대표 사례와 비교해 배상비율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시스

분쟁조정 대표 사례가 공개되기까지는 통상 2~3개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와 민원인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부터 법률 검토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율배상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고, 모호해 투자자들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 사례를 기다리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대표 사례 선정 방식은 앞선 사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에는 회사별로 1~3개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선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 문제가 된 DLF·라임 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 당시 가

산·차감 요인 등을 고려해 20~80% 배상 비율이 정해졌던 바 있다.

다만 홍콩H지수 ELS는 앞선 사례들과 다르게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0~100%까지 세분화했기 때문에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40만 계좌에 달하는 홍콩 ELS 계좌 규모에 자신의 사례를 대표 사례와 연관 지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홍콩H지수 ELS 계좌를 보유한 한 투자자는 "은행과 당국이 대표 사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행에 유리한 대표 사례만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2~3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분쟁조정 대표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 관계자는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 선정 및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분조위에 대표 사례를 회부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이다.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해당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완전 적립식 '신연금제도' 도입 고려해야"

>> 1면 '연금 고갈만 늦춘...'서 계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 조정 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연금제도 도입,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

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향후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알리, 국내진출 가속... 연내 물류센터 세운다

>> 1면 '식품업계 줄줄이...'서 계속

한 업계 관계자는 "K-메뉴는 알리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들 중국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카테고리"라며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혹은 비슷한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국내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점 업체가 직접 상품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식품 품질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알리는 국내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렸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올해 약 2억달러(2632억원)를 투자해 국내에 18만여㎡(5만4450평)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축구장 25개를 합친 크기로, 쿠팡의 최대 규모 물류센터인 대구 풀필먼트센터(33만㎡)보다 작지만 컸다. 경기 평택 물류센터(20만㎡)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